제 20회 졸업 특집
월드미션 헤럴드

WORLD MISSION HERALD

목 차

발행인 임동선
편집인 이금희, 임종호, 윤명주, 정현성
발행일 2011년 5월 24일
발행처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5.2322 Fax) 213.385.2332
Website: www.wmu.edu E-mail: informations@wmu.edu

예수님의 위대한 생애

**요한복음 6:38-40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지구 상에는 인간 역사가 시작된 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고, 현재도 약 65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인생을 제일 위대하게 살았느냐고 물을 때, 사람들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 네 분을 말합니다. 이 네 분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하게 살았느냐고 물을 때에는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꼽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불란서의 나폴레옹은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께는 무릎을 꿇는다"고 하였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인류 역사상 사람다운 사람 두 사람을 봤는데 하나는 소크라테스요, 다른 하나는 예수다"라고 말했고, 인도의 간디는 "나는 힌두교인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는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는 존경한다"고 하였습니다. 주후 3세기,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였던 로마 쥴리안 황제는 마지막 죽을 때 최후에 남긴 말이 "오- 나사렛 청년이여 그대는 이기었구나"하고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책 한 권 쓴 바 없지만 지금 지구 상에 있는 신학교,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에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 수천 만권이 있고, 그 분은 교회 하나 세운 적 없지만 오늘 지구 상에는 수백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원 하나 세운 바 없지만 오늘 지구 상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운 수십만 개의 병원이 있고, 찬송가를 한 곡도 작곡, 작사한 바 없지만 오늘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수백만 곡이 있습니다. 그 분이 탄생한 크리스마스 날에는 전쟁도 하루를 휴전하고 인류 역사의 기점을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벌도 없는 분입니다. 공자는 양반집에서 태어났고, 석가는 왕자로 태어났고, 소크라테스는 중류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예수님은 노동자 목수의 집에서 태어난 문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학벌도 없는 분입니다. 공부는 환경이 좋아야 하고 뜻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있어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는 것인데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는 이런 조건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력서에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며, 아버지를 따라 노동자 목수일만 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자는 74세를 살았고, 소크라테스는 70세를 살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절반도 안 되는 33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도 3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인류 역사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실 수 있었을까요. 세계적인 3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40년, 플라톤이 50년, 아리스토텔레스가 40년을 가르친 것을 합해 130년이 되는데, 이 세 철학자들이 130년 동안 가르친 교훈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3년 동안의 교훈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오늘날의 지성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39절에 나와있는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33살에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위대하게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곡히 소원했고, 결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일편단심,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33살에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라는 명령에 절대 순종으로 죽으심으로 짧게 사셨지만 위대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벌도 학벌도 없이 3년의 공생애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사신 것은 자기 부정, 종 되어 섬김, 원수 사랑, 자기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임동선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죽음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목창균 교수

오늘의 주제는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성경과 기독교 신학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죽음이란 동서양을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에 절대적인 끝으로 보는 견해와 또 환생으로 보는 견해, 또한 분리로 보는 견해 이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먼저 죽음을 인간적인 끝으로 보는 대표적인 견해는 유대교의 사두개파나 헬라의 철학파였던 에큐페로스 학파라든가 아니면 현대의 규메니즘 같은데서는 죽으면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도 개인의 소멸로 사후의 삶을 부정하는 유대교 종파였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헬라의 에큐페로스파도 죽음 후의 세계는 무의 세계이기 때문에 현세의 삶을 강조하는 쾌락주의를 주장을 한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휴머니즘은 인간의 불멸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현대의 사조 가운데 하나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죽음을 환생의 과정의 한 단계로 보는 것은 동양사상의 뿌리를 둔 힌두교 불교인데 하나의 해탈경지, 순환에서 환생하는 것이 죽음이다고 이야길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양의 주류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죽음을 분리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에서는 플라토닉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전생이 있다고 보는데 영혼은 정화를 위해서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육체와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영혼이 육체의 속박 아래 있다가 죽는 것은 육체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이디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죽음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감옥생활을 하다 이제 벗어나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전생으로 돌아가는 이디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헬라 사람들은 부활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 안의 감옥에 있었던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본 것이 헬라 사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역시 죽음의 본질을 분리로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영혼이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상태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훈의 특징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한 개괄을 해 놓고 성경을 들여다 보면 초대 구약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죽음을 분리로 보지는 않았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구약성경 초기에는 죽음을 인간 존재의 하나의 종국으로 보는 생명의 끝으로 보는 견해가 강했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는 개인의 종말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공통체로서의 종말에 관심이 있었지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포로생활을 끝낸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적인 종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죽으면 영원히 음부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음부라는 개념은 사후 존재의 거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나 의인이나 막론하고 죽으면 다 음부로 가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상태가 가장 약한 상태가 죽음의 상태이고 그림자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자 같다고 이야기 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이 난 것은 아니고 희미한 존재로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서는 인간의 존재의 생명력이 아주 미약한 상태이지만 아주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그림자 같이 희미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후기에 가서는 보다 분명하게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을 상실하고 음부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는 하나님이 인간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생명의 호흡이 중단된 상태가 죽음이고 그것이 생명의 가장 미약한 상태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포로생활을 겪으면서 관심이 개인의 운명이라든가 또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구약시대 후기에 가서는 내세에 대한 신앙이 좀 더 구체화 됐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예언서에 가보면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언급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초기에는 죽음에 대해서는 생명이 미약한 상태의 끝으로 보니까 비관적인 죽음을 슬프게 보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부활 개념이 등장하면서 죽음은 하나의 축복으로 보는 낙관적이면서 긍정적인 죽음관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입장이 신약성경에 와서도 계속 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구약성경 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신약성경의 중심 주제는 아니고 중심 주제를 다루면서 부수적인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체계적으로 이야기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심주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간의 죽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의 죽음관을 정리하면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 병원에서 임종 전의 환자의 체중 변화를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숨을 거두는 순간 그 환자의 몸무게가 35그램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또 이년 반 뒤에 다섯 명의 임종 환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역시 28.4그램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저는 21그램이 실제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영화라든가 의사라든가 과학자들의 실험이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서구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 와서 인간존재의 끝으로 보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인간 생명이 존속된다는 것이 구약성경에서부터 암시하다가 신약성경에 와서 명료화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잠으로 비유한 것 역시 인간의 생명이 죽음 이후에도 존속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는 사람에게 죽었다고 하지 않듯이 잠으로 이야기한 것은 육체의 기능이 중단된 이후에도 존재하기를 계속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사실 신자들 경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천국이 현세보다 더 좋다고 하면서도, 누가 일찍 세상을 뜨면 아주 불행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두려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잠으로 비유한 데는 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게 멋있게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지 다른 형태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알맞게 이 세상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육체라고 한다면 천국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외투를 입었다가도 봄이 되면 벗어 버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낙원이나 음부 또는 천국이나 지옥 중의 한 곳에서 존재하기를 계속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새 삶의 영역에로 전환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에 보아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고, 사도 바울이 육과 영을 분리해서 대립하고 있다고 한 로마서의 교훈들이 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보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에서 처럼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이 환영 받을 사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고 신자들에게 공포의 힘은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이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이질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물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신자들에게 두려움의 힘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언어행위 이론과 성경해석

임성진 수석 부총장

낸시 머피(Nancy Murphy)는 『자유주의와 기초주의를 넘어서』(Beyond Liberalism and Fundamentalism 1996)에서 루드 위그 비트 겐스타인과 제이. 엘. 오스틴의 언어 이론은 종교적 언어에 대해 보다 적절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996, 제5장). 이 철학자들은 "실제의 거울이나 그림으로서의 언어"라는 만연된 사상을 거부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이를 대치하였다. "새로운 이미지란 언어를 하나의 도구나 행위로 보는 것이다. 오스틴과 비트겐스타인은 사회세계에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언어의 사용을 강조한다." (1996,111)

비트겐스타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다양한 언어 게임들을 고안함으로써 이 세상의 사물들에 대한 것이며, 그 안에서 언어 사용자들은 언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비트겐스타인은 『철학적 연구』(Philosophical Investigations)에서 그러한 왜곡된 사상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비트겐스타인의 전략이 주는 교훈적인 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를 다양한 언어 게임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언어가 전적으로 이 세상의 사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도록 도와준다.

비트겐스타인의 견해에 따르면, 설령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대상물주의는 신학 언어는 주로 실제에 관한 것이라는 견해임을 알고, 보수주의자들의 대상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머피는 또한 우리는 자유주의자의 표현주의, 즉 신학 언어는 본질적으로 내적 경험에 관한 것이라는 견해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언어는 규칙을 포함하며, 이러한 규칙은 사유화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어의 수행적인 면은 성경 담화에 접근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비트겐스타인은 모든 설교자와 독자가 현실과 연관된 기독교적 삶의 실제 내에서 성경 담화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고무한다. 해석자의 과제는 성경 언어가 구현하는 삶의 다양한 형태와 관련된 실생활의 관습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라는 비트겐스타인의 말은 성경 담화의 경우에 있어 사실이다.

오스틴의 언어행위이론에 대한 머피의 설명은 비트겐스타인의 언어사상에 대한 설명보다 더 광범위하다. "모든 언어는 화자가 말을 할 때 무엇을 행하는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1996, 114)라는 오스틴의 기본 사상을 상술하는 머피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대상과 표현은 화자가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 결정되며, 따라서 논리적으로도 의존적이다 라는 것을 핵심적 요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1996, 115).

오스틴은 언어 사용의 사례들을 "언어 행위"로 불렀으며, 『말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법』(How to Do Things with Words)에서 "행복한" 또는 기쁜 언어 행위를 위한 조건들을 조사하였다. 머피 자신이 사용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화자, 예를 들면 학생에게 "문을 닫아주어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교사는 만약 "X에 대해 감사합니다" 가 감사를 표현하는 관습적 방식이라면, 실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언어 행위를 수행한 것이다(일차적 조건).

더 나아가, 이런 발화의 행복은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학생이 실제로 문을 닫고(반응 행위), 화자는 학생의 행위(감정적 행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요구한다. 이런 언어 행위가 대상과 표현을 요구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일차적인 것은 아니다. 머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러므로, 대상과 표현은 둘다 대부분의 언어 행위에 기본적이다. 그러나 언어 행위의 본질에 대한 질문 - 화자가 문장을 가지고 시도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선험적인데, 그 이유는 이러한 질문이 적절한 내적 태도의 종류를 결정하며, 마찬가지로 언어와 세계간의 어떤 종류의 관계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상이나 표현으로 시작하려고 시도하는 언어에 대한 설명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1996, 115)

머피는 어떻게 언어-행위(발화행위) 이론이 성경 해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1996, 122-126). 성경 본문을 언어 행위로 분석하는 첫 번째 단계는 "본문을 언어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단지) 종교적 인식의 표현이나 (단지) 사실적 설명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1996, 122). 머피는 성경적 비평주의의 다양한 유형들과 몇몇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서 성경적 언어 행위가 행복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다섯 가지 유형의 조건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 조건들은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관습들, 대상, 표현, 심리적 조건들 그리고 이해력이다.

그러나 머피는 언어행위 분석은 성경해석의 완전한 이론으로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성경 본문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종류의 요소들이 관련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침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1996, 126).

머피는 의미를 찾아내는 문제, 즉 의미가 본문 "전에" 또는 "뒤에" 또는 "안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한 성경 해석의 방법에 관한 논쟁을 제시한다. 그녀는 본문이 무엇을 행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차원들, 즉 저자, 본문, 사회, 독자의 반응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1996, 126).

머피는 프레드리히 슐라이어마흐(Friedrich Schleiermacher)와 같이 본문의 의미를 저자의 의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한다. "행복한 발화 행위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 이해력인데, 이는 문제의 구절에 의해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1996, 124). 그러나 이 말이 저술할 당시에 저자의 심중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재구축하거나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머피가 언급하듯이, "저자의 의도를 인식한다는 것이 저자 집필 당시의 언어적 및 사회적 관습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상상력이나 감정이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1996, 124).

Murphy, Nancey (1996).
Beyond Liberalism and Fundamentalism.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신앙인과 신앙생활

레위기 10장 1-2절

김대성 학우

오늘 저는 '신앙인과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 학우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저 역시 세상 속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후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인격이 훌륭하신 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 영적 지도자, 성공한 사업가, 가난한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정신적으로 불안한 자, 긍정적인 자, 꿈이 많은 자, 현실에 안주하는 자. 병약한 자 등. 이 만남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등불을 여호와께 드리려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 올라갔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등불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인인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막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언약 중심으로 서라는 말입니다.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광야 길에서 굶어 죽지 않게 먹이신 만나가 든 항아리와,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릴 때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시며 말씀을 영원히 하라는, 바로 그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다는 것은 성막 모양만 다듬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언약궤의 키는 '구원'입니다. 성막 모양만 다듬어서는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등불을 드리는 제사장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등불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가득 있어도 등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등불은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등불이 꺼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로만 그 등불을 다시 켜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랐던 나답과 아비후가 언약을 놓치고 다른 불을 드리려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은 오늘 날의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다른 불을 붙이면 죽습니다. 주의 종들이 등불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은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등불, 그 씨를 가지고 불을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씨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등불의 기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일본이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평양에 성령 대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조선에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기뻐하면서, 만약 남의 나라를 침략한 일본에 이 같은 축복이 있다면 불합리하다. 앞으로 일본은 반드시 조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씨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을 붙인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지역이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이든, 유대 땅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행렬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이들을 살려 내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세운 신앙인으로, 또 주의 종으로서, 남을 배려하고 돕고, 나누며 감싸 안는 신앙생활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에 선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 3장 1-12절

김정득 학우

"Most"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체코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한 철도관리인이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배가 올 때는 다리를 올리고 기차가 지나갈 때면 다리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함께 지나가는 기차를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시간 후에 올 예정이었던 기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마침 다리는 지나가는 배를 보내느라 올라가 있었고 기계를 정비하고 있던 아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서 놀고 있던 아이는 기차를 봤습니다. 아이가 고함을 질렀지만 멀리 있는 아빠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아이는 다리 밑에 연결되어있는 수동 레바를 당겨 내리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기계들 사이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기차소리를 들은 아빠가 다리를 내리려다가 근처에 있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막 기계들 사이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를 구하러 가기에는 기차가 너무 빨리 오고 있고, 다리를 내리게 되면 기계 사이에 끼여 있는 아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아빠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살리느냐, 아니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느냐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 가득한 얼굴로 아빠는 다리를 내렸습니다. 기차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웃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 연인과 헤어져서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 그리고 마약을 하려고 막 주사기를 든 사람 등.... 기차는 오열하는 아빠를 뒤로하고 내려진 다리 위를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는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아빠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알려줘야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월드미션까지 오게 된 것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포로시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함께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한 도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의 전쟁포로가 이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가 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안심인가 싶었던 그들에게 다시 시험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가 약 30미터, 폭이3미터의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넓은 평지에 세우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그 신상 제막식에 참석 시켰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왕의 금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그들을 고소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운동을 갈까 말까? 이 직업을 가지면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을까? 졸업할 때가 되면 진로를 두고 또 고민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사람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선택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결과, 그 선택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는 잘못된 선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첫 사람 아담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구멍에 단추를 끼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이 옷을 제대로 입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고행을 해도 절대로 이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단추를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끼우는 조건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잘못 낀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 예수님의 선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아멘!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God died for you! Because He loves you! because you are precious! because you are so important!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살도록 다해 놓으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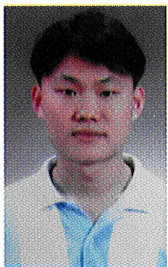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한 지방을 대표하는 주지사였습니다. 그들은 지위가 높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금 신상에 절 한번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다니엘의 친구들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다니엘의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한 잔쯤이야 어때?" "야 교회 다녀도 다 담배피더라. 넌 어째서 그렇게 혼자만 잘 믿는 척 하냐?" "이 사람아 그렇게 해선 성공하지 못해!"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이 다 YES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NO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은 크던 작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뜻을 정합시다. 자신의 약점이나 세상과 타협하는 나쁜 습관이나, 합법적이지 않는 모든 일들을 바로잡기로 다짐합시다. 포로시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고, 성공한 후에도 그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뜻을 정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정한 뜻을 계속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 사모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세 번씩 기도한 다니엘처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졸업식 답사

문주철 학우

진심으로 존경하는 총장님, 교수님들, 학교 임직원분들과 내빈 여러분, 기쁘고 따스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졸업생 가족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함께 졸업을 하는 학우 여러분!

솔직히 졸업생 대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이 제겐 어설픕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가 제게 자랑스럽고 큰 기쁨이 됨은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심은 가장 자격이 없는 자를 높이심으로 우리 모두를 더욱 높이시는 주님의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2000년 8월 6일, 약 11년전 인도라는 선교지에 파송되었을때 전 2주간을 날마다 울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것은 선교지 영혼들을 향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선교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정말 선교사로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발견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두 주간의 죽음과도 같던 고통의 시간이 흐르고 몬순의 폭우로 온 거리가 무릎까지 잠긴 주일 아침이 되어서야, 눈물은 넉넉한 감사로, 두려움은 지평선 너머에 뜬 쌍 무지개로 변해 있었습니다. "너의 삶이 결코 부서지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의 삶을 아름답게 하리라"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스한 형형 색색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볼품없고 투박한 저를 이처럼 귀한 자리에 세우사 아름다운 당신의 색으로 채색하심은 그저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2008년 가을학기를 시작으로 강의실에 앉아 교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수업을 한번도 듣지 못한 온라인 원격강의 수강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캠퍼스에서 배우는 것처럼 진지한 마음으로 학문적인 탐구를 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월드미션대학교가 가진 뛰어난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 덕분입니다. 또한 40도가 훨씬 웃도는 인도의 뜨거운 더위보다 더 뜨거운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열정,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과제 제출이 늦어져도 열심히 당근과 채찍을 먹이며 가이드해 주신 학교 임직원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넉넉치 못한 선교사의 주머니 사정을 아시고 지원해 주신 장학금 외 많은 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졸업하면 의례 정든 캠퍼스를 떠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의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원격 강의를 해 와서인지 모든 과정을 마치고서도 아직도 자신도 모르게 원격 강의 홈 페이지에 들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곳이 바로 열기 가득한 강의실이었고 함께 얼굴을 볼 순 없지만 학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졸업식이 되어서야 직접 캠퍼스에 설레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고, 교수님과 학우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되니, 입학과 졸업의 기쁨이 서로 교차하는 것 같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학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자랑스런 월드미션대학인으로서 우리 각자에겐 가야 할 공통된 사명이 주어졌다고 전 믿습니다. "성경 중심의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교회와 세계를 위한 지도자" 우리 서로 이러한 멋진 지도자가 되기 위해 서로 더욱 격려하고 사랑하며, 어느곳에 있든지 언제나 월드미션대학인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를 더욱 사랑의 채찍으로 가르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길 이시간 총장님과 교수님들, 학교 임직원 분들, 이 자리를 찾아 주신 졸업생 가족과 내빈 모든 분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월드미션대학인들이 지구촌을 목장삼아 곳곳을 누비며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더욱 축복해 주시길 모든 졸업생들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총장님과 교수님들, 학교 임직원 분들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졸업생 가족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식 답사

송창건 학우

이번에 제가 졸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의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쉽지 않은 해외 생활 중이었고(물론 많은 다른 분들도 저와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 거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신학에 관한 책자들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시고 인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졸업을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에 대한 올바른 시야 관점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월드미션 신학교의 임동선 총장님과, 임성진 부총장님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항상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 또한 저희 가족과 친척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공부하여 졸업하는 모든 학우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제자로서의 삶과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찬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먼저 저의 좁은 시야가 더욱 하나님 중심적인 시야로 넓어졌고, 신앙생활과 사역에서도 더욱 균형 잡힌 생활뿐 아니라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파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에 대해서도 재조명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따라 더욱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역에 임할 때 그동안 배웠던 많은 영적 지식과 학문을 토대로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르신 소명을 위해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께 올려 드리길 원합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소식

신입생 환영회

1. 18. 2011.

2011년도 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회가 열렸다. 신입생들은 각 과정별로 담당교수와 수강상담을 하고 총장님과 면담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조석환 교수의 식사기도를 시작으로 교제를 나누며 재학생들의 환영의 노래, 교수소개, 신입생소개, 동문회 소개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동선 총장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며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정직한 인물, 의지가 철석같이 강한 신의가 있는 인물, 한 가지 일에 불타는 열성적인 인물, 작은 일도 큰 일로 생각하는 충성된 인물, 개인의 야심이 아닌 인류의 야심인 이타심이 있는 인물, 기회를 잡는데 민첩한 판단력이 있는 인물, 용기있고 결단성 있는 인물, 어디를 가든지 자기 특색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인물, 어떠한 비천한 노동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물,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는 인물'을 꼽았다. 또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성직자로 갖춰야 할 세 가지는 꼭 기억하라'며 '지성, 인성, 영성'을 강조하며 졸업하기 전에 꼭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개강부흥회

1. 25, 27. 2011.

2011년 봄학기 개강 부흥회를 개최했다. 첫날 강사로 나오신 서울 신학대 총장 및 교수인 목창균 교수는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목 교수는 글로벌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꿈을 실현하며 살기 위해서 "한 가지에 집중하라, 감사하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하라."는 귀한 가르침을 주었다.

둘째 날에는 역시 목창균 교수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주제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부흥회를 이끌었다. 목 교수는 신학생들이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여 포기하지 말라"는 귀한 가르침을 주셨다.

학생 MT

2. 19-20. 2011.

2011년 봄학기 MT(학생 단합회)가 선랜드에 위치한 살롬 기도원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는 본교에서 구약을 강의하는 김선익 교수로 금, 토 양 일간 1시간 30분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뜨거운 영적 도전을 주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날 2011년 봄학기 신입생과 재학생, 동문들과 교직원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감사함을 되새기며 학교 생활을 위해 월드미션대학교 공동체에 속한 서로를 알아가며 기도해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ABHE 영구 정회원 인정

2. 23-26. 2011.

월드미션대학교가 ABHE(기독교대학 연합회)로부터 영구 정회원으로 인정되었다. 지난 2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개최된 ABHE제 64차 총회에서 월드미션대학교가 임시 정회원의 과정을 잘 마치고 영구 정회원이 된 것이 발표되었다.

통상적으로 ABHE 의 인가과정은 신청자 단계(Applicant Status), 준회원 단계(candidacy Status)를 거쳐 임시 정회원(Initial Accreditation)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후 5년 동안 임시 정회원으로 있으면서 정회원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영구정회원(Full Accreditation)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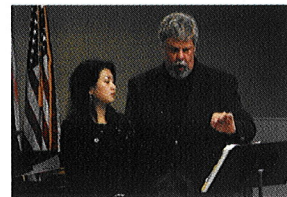
학술 세미나

3. 22. 2011.

2011년도 봄 학기 학술 세미나가 목창균 교수를 강사로 열렸다. 목창균 교수님은 '죽음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죽음의 일반적, 성서적 견해로 시작하여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여러 교파의 견해를 예로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많은 학생들의 궁금증이 집중되었던 '죽음 후의 영혼의 의식'에 대한 설명을 성경적인 예와 깊은 통찰력이 묻어있는 강해로 풀어내어 많은 학생들의 공감과 도전의식을 불러주는 성공적인 학술 세미나가 되었다. 목창균 교수는 듀크 대학교 신학 대학원 연구교수로 봉직하였고 서울 신학대학교 총장을 거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마스터 클래스

3. 25. 2011.

지난 3월 25일 월드미션대학교 채플에서는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성악과장으로 있는 Jeffery Snider교수의 성악 마스터 클래스가 열렸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는 총 여섯 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롯한 외부 신청자가 참가하였다.

테너 위정민은 Quilter의 'Blow blow thou winter wind', 바리톤 김성은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Hai già vinta la causa', 소프라노 김영안은 모짜르트의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 'Der Holle Rache', 테너 박환은 Franz Lehar의 ' Dein ist mein ganzes Herz', 바리톤 조준석은 바버의 'Sure on this shining night'등을 불렀다.

Snider교수의 세심한 조언을 들은 참가자들은 미국 최고 수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교수 연주회

3. 26. 2011.

마스터 클래스를 지도했던 Jeffery Snider 교수와 월드미션 대학교 기악과의 황소명 교수가 함께 Immanuel Presbyterian Church, Westminster Chapel 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음악에 붙여'라고 번역되는 하는 슈베르트의 'An die Musik'를 첫 곡으로 하여 '송어' 등 우리에게 익숙한 리트를 시작으로, 베드리의 'La Traviata'에 나오는아리아 'Di Provenza Il mar, ilsuol', 그리고 Vaughan Williams의 'Songs of Travel' 등 수준 높은 음악을 최고의 기량으로 연주하였다.

황소명 교수의 감성을 터치하는 서정적이면서 열정적인 연주와, Jeffery 교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나운영 작곡) 유려한 한국어 연주가 많은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성공적인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영구정회원으로 인정된 월드미션대학교는 영구 정회원 학교로서의 모든 특권과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학교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번 총회 전에 개최된 아래와 같은 특별 세미나에 본교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 효과적인 학생모집 시스템 구축 (임성진 부총장)
Building An Effective Enrollment Management System
- 통합적인 학생모집 전략 구축 (임종호 사무처장)
Building An Intergrated Communication Strategy
- 후원행사 기획 및 시행 전략 (황소명 교수)
Annual Fund Design & Strategy
- 후원자 모집 및 관계 정립전략 (이금희 교수)
Major Donor Development Strategy

학교 소식

설교대회

4. 5. 2011.

화요 채플시간에 본교의 설교대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 4명은 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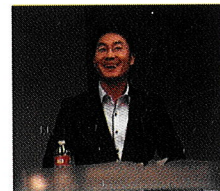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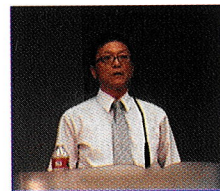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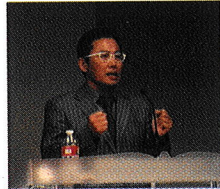
[팔죽의 댓가]
(창 25:31-32 고정석 학우),

[신앙인과 신앙생활]
(레 10:1-2 김대성 학우),

[십자가의 길, 참 예배의 길]
(요 4:5-24 김상우 학우),

[선택의 순간에 선 다니엘의 친구들]
(단 3:1-12 김정득 학우)

이라는 주제로 열띤 선의의 설교 경쟁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떨리는 경쟁 속에서도 정확한 시간엄수와 규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펼쳐내 많은 학우들의 공감을 끌어내었다.

ATS 감사

4. 11. 2011.

ATS 심사팀이 WMU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그동안 준비해 온 서류를 바탕으로 각 실무진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희망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적으로 ATS 심사팀과 인터뷰를 마친 학생들은 조금 긴장했지만 학교를 대표하여 심사팀과 의견을 나누고 학교의 장점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제 10회 학생 음악회

4. 16. 2011.

본교 학생음악회 기사가 지난 4월 12일자 LA 중앙일보에 아래와 같이 게재되었다.

월드미션대학(World Mission University)이 인종과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화합하기를 원하는 '뮤직 페스티벌'을 연다. 16일 오후 7시30분 한길교회(전 헤브론교회)에서 펼쳐지는 이번 음악 축제는 이 대학에서 꾸며온 10번째 스튜던트 뮤직 페스티벌.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의 음악 정신을 고양시킨 조지 거쉰 애론 코플랜드 레너드 번스타인 등 미국의 대표적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클래식 음악의 기초가 생성되었으며 훌륭한 음악가들을 다수 배출해 내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과는 달리 미진한 미국의 클래시컬 뮤직의 역사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장르별 연대를 구별짓기 어려운 정황이었다. 하지만 20세기 초 이후 유럽의 현대적 음악의 요소들은 미국의 재즈와 민요 등의 특성들과 융합 새로운 장르를 통해 미국의 색깔들을 선명하게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주역을 맡았던 대표적인 작곡가들이 바로 거쉰 코플랜드 번스타인 등이다. 이들은 대중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르인 뮤지컬이나 발레 영화음악 등에 클래식과 대중음악적 요소를 결합시켜 대중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재탄생 시켰다. 특히 조지 거쉰은 변방의 음악으로 알려졌던 재즈를 클래식 형식과 융합시켜 주요 공연 무대로 이끌어낸 공헌을 한 뮤지션이다. 이로 인해 미국 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으며 미국이 현대 음악의 중심적 무대가 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월드 미션 대학의 음악과에서는 이같은 미국에서 생성된 독특한 음악들을 무대에 펼쳐 놓음으로서 청중들이 미국 만의 음색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행사를 마련하는 윤임상 음악과 주임 교수는 "미국의 음악이 클래식과 현대 음악의 브리지 역할을 했듯 이번에 선보이는 음악회가 세대 간의 차이 종교 간의 차이 인종 간의 벽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한 무대를 마련하겠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목사 안수 감사예배

1. 23. 2011.

본교 19회 졸업생 김명구 동문이 지난 1월 23일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목사 안수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명구 동문은 "우리 주님이 주셨던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헌신하는 감회를 밝였다. 다음은 선한 청지기 교회 신문에 게재된 기사 전문이다.

"지난 1월 23일 오후 4시 30분에 김명구 목사의 목사 안수 감사예배가 여러 성도들과 내빈들을 모시고 본 교회 본당에서 드려졌다.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평신도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여 목사로 주님께 헌신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결단과 과정이 있었겠지만, 끝까지 이를 완주한 김명구 목사와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처음의 그 결단처럼 주님가신 길을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 드린다."

무료 의료봉사 활동

12. 13. 2010.

본교 통신과정 M.Div.과정 졸업생인 최학선 동문의 기사가 지난 12월 13일자 LA 중앙일보에 게재되었다.

"밝은 미래 재단(이사장 홍명기) 이 연말을 맞아 한인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는 '선라이즈 커뮤니티 클리닉'(원장 최학선.구 베데스다 무료 클리닉)에 1만달러를 기증했다.

선라이즈 커뮤니티 클리닉은 지난 2009년 개원한 이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 불체자들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주 3회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이 클리닉은 의료봉사 외에도 민병수 변호사 김인자 교수 등과 함께 청소년 탈선 및 갱범죄 예방 프로그램 금연 클래스 웰빙 요리클래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봉사에 힘쓰고 있다.

홍명기 이사장은 13일 오전 기금을 전달하며 "의료봉사활동을 비롯해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최학선 원장의 열의에 감동을 받았다"며 "조금이라도 봉사활동에 동참하고픈 마음에 후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학선 원장은 "밝은미래재단의 따뜻한 성원에 감사 드린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졸업생 사역 현황

1992년 제 1회

박대영 집사	Dip. 한국	
박현수 집사	Dip. 한국	
강성구 목사	M.A.	독일람슈타인 동양선교교회
김진숙 전도사	M.A.	한국 안디옥교회봉사
임성진 목사	M.A.	월드미션대학교 부총장
김용식 목사	M.Div.	뉴멕시코 라스크루시스 한인 침례교회
오기열 목사	M.Div.	Talbot 박사과정
이법웅 목사	M.Div	LA 찬양교회 담임목사
조원하 선교사	M.Div.	

1993년 제 2회

고바울 전도사		
한은희 전도사	M.A.	
남조웅 목사	M.Div.	밸리청소년센터 원장
오윤화 전도사	M.Div	
유순자 전도사	M.Div	Fuller 목회학 박사
윤경호 목사	M.Div	콜로라도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이훈 목사	M.Div.	나성신보/언론인
임용한 목사	M.Div	

1994년 제 3회

고해연		
김영희 전도사		중국 연변 현지 선교사
김성봉 전도사	B.A.	
김추자 전도사	B.A.	동양선교교회 병원선교 전도사
이영숙 전도사	B.A.	
박병철 전도사	M.Div	코너스톤교회 전도사
안국련 목사	M.Div	열매교회 담임목사
이극래 전도사	M.Div	
이승인 목사	M.Div	시애틀 동양선교교회 부목사
이재현 목사	M.Div	Palmdale OMC 담임목사/WMU 운영이사
이정남 목사	M.Div	중국선교사/가주평강교회 담임목사
이종예 전도사	M.Div	
주영세 목사	M.Div	
함상배 목사	M.Div	OMC 후원 중국 선교사

1995년 제 4회

이은혜		
임금화 권사	B.A.	멕시코 선교
장코스모스 전도사	B.A.	중국선교사
홍문숙 전도사	M.A.	
김계회 전도사	M.Div	
김재선 목사	M.Div	
이제은 집사	M.Div	동양선교교회
조화진 선교사	M.Div	병원사역
최영희 선교사	M.Div	태국 파송 선교사

동문 소식

1996년 제 5회

박정숙 전도사		유니온교회 전도사
유경순 전도사	B.A.	
이명희 전도사	B.A.	뉴호프채플
김성조 사모	M.A.	중국선교사/오레곤 성결교회
박명보 선교사	M.A.	한국장로교회
백영두 장로	M.A.	Wycliffe Bible Translators
김덕규 목사	M.Div	새소망선교교회 담임목사
김성자 전도사	M.Div	벨리한인장로교회 찬양,교구 전도사
김애영 전도사	M.Div	부름선교교회
김인광 전도사	M.Div	킹슬리노인센터
김진국 목사	M.Div	
남윤희 목사	M.Div	버뱅크 새소망교회
노명섭 목사	M.Div	샌디에고 제일 동양선교교회 부목사
박준림 목사	M.Div	보뇌르선교합창단 단장
서기자 전도사	M.Div	동양선교교회
윤재영 전도사	M.Div	
이주형 목사	M.Div	
최서혜 전도사	M.Div	

1997년 제 6회

권재옥 목사	B.A.	중국선교사
김동준 목사	B.A.	생명의 빛 교회 담임목사
이성례	B.A.	
이혜정 전도사	M.A.	나성순복음교회 전도사
신봉례	M.Div	동양선교교회

1998년 제 7회

김인희	B.A.	
김효복	B.A.	동양선교교회
우병은	B.A.	
이경인	B.A.	
이해련 전도사	B.A.	생명의 빛 교회 전도사
전춘영 전도사	B.A.	벨리 유니온교회 전도사
황성은 목사	B.A.	필그림 교회
권옥선 전도사	M.Div	장로교회 전도사
김주연 목사	M.Div	중국 연변 선교사
류창식 목사	M.Div	
신영희 전도사	M.Div	버뱅크 새소망교회
엄재헌 목사	M.Div	프랑스 거주
이인검 목사	M.Div	LA 주님의선교교회
전성도 전도사	M.Div	종려선교교회 전도사
전인순 전도사	M.Div	성서장로교회 전도사
한희숙 전도사	M.Div	동양선교교회 소망부 전도사

1999년 제 8회

김경례 전도사	B.A.	충현선교교회
정남숙 목사	B.A.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부목사
양준석 장로	M.A.	동양선교교회
김인수 목사	M.Div	
백우철 목사	M.Div	행복한 교회
윤성환 목사	M.Div	WMU 운영이사/윌셔연합감리교회 부목사
이명희	M.Div	뉴호프 채플
이상혁목사	M.Div	우리교회 목사
최학철목사	M.Div	중국선교사
조성운	M.Div	예수촌 교회

2000년 제 9회

강정학 목사	B.A.	나성한인감리교회
박재민 목사	B.A.	
유동훈 목사	B.A.	멕시코 선교
이보경	B.A.	
조은혜 전도사	B.A.	남가주 하나교회
홍종우 전도사	B.A.	
송종은 집사	M.A.	
권재옥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김대환 전도사	M.Div	
김동준 목사	M.Div	생명의 빛 교회 담임목사
김인희 전도사	M.Div	
박정숙 전도사	M.Div	유니온 교회 전도사
전춘영 전도사	M.Div	벨리 유니온교회 전도사
정영식 장로	M.Div	동양선교교회
조항묵 목사	M.Div	아이다호 비전교회
황성은 목사	M.Div	필그림 교회

2001년 제 10회

김대준 선교사	B.A.	LA 비전교회
서필관 목사	B.A.	중국 선교사
오하영 전도사	B.A.	
이미량	B.A.	뉴호프채플
진미애	B.A.	
진범서	B.A.	
진숙이 전도사	B.A.	무궁화침례교회
최영순 전도사	B.A.	선민교회 전도사
홍표란	B.A.	사랑의 교회
이해련 전도사	M.Div	생명의 빛 교회 전도사
조배성 목사	M.Div	나성중앙장로교회 전도사

2002년 제 11회

강태준 전도사	B.A.	나성양문교회
김선애 전도사	B.A.	풍성한 교회
김승원 집사	B.A.	창대 교회
김정옥	B.A.	중국
안용균 전도사	B.A.	울타리 교회
윤병완 전도사	B.A.	행복한 교회
이신재	B.A.	동양선교교회
주문경	B.A.	독일거주
최준영	B.A.	동양선교교회
진성백 목사	B.A.	나성양문교회
고영집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김경례 전도사	M.Div	양문교회 전도사
김대준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김은숙	M.Div	
유동훈 목사	M.Div	멕시코 선교사
한광덕 목사	M.Div	한길교회 담임

2003년 제 12회

구은혜 전도사	B.A.	
김경희 전도사	B.A.	나성한인감리교회
김연옥	B.A.	
윤희석	B.A.	한국
이갑년 집사	B.A.	동양선교교회
이순옥	B.A.	아프리카 선교사
임양택 전도사	B.A.	소망교회
최임식	B.A.	IAM 교회
한석규 목사	B.A.	새길교회
배윤범 장로	M.A.	
오광찬 장로	M.A.	동양선교교회
김승희	M.Div	영락교회
김창국 선교사	M.Div	소천
박인호 전도사	M.Div	OMC 사역
박재민 목사	M.Div	
서필관 목사	M.Div	하나님나라교회
이후상 목사	M.Div	한국 사역
이희성 목사	M.Div	
장윤정 전도사	M.Div	베델한인교회
진성백 목사	M.Div	나성양문교회
최준철 강도사	M.Div	세계아가페 선교교회
한은혜 전도사	M.Div	남가주 하나교회

2004년 제 13회

곽종혁	B.A.	
권인순 전도사	B.A.	미주평안교회
김규호 전도사	B.A.	IAM 교회
김수현 목사	B.A.	한빛교회
서상민 목사	B.A.	남가주 빌라델비아 교회
서영희 전도사	B.A.	KCC 교회
성옥호 전도사	B.A.	세계선교교회
이만식	B.A.	
이미정	B.A.	알라스카
최현숙 전도사	B.A.	벨리 호산나교회
곽상채	M.A.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신재	M.A.	동양선교교회
고영보 장로	M.Div	동양선교교회
김학송 목사	M.Div	중국 선교
김혜선	M.Div	콜롬비아 선교사
방헬렌 전도사	M.Div	라스베가스
변형철	M.Div	한국 군목
양성반	M.Div	하와이 군목
유정수 목사	M.Div	코스타리카 선교사
유혜란 선교사	M.Div	코스타리카 선교사

2005년 제 14회

강문정 전도사	B.A.	W.L.A. 한인교회
김덕호 목사	B.A.	사과나무교회
김박선미 집사	B.A.	열방교회
김연주 집사	B.A.	밸리찬양교회
김영애 권사	B.A.	쥬빌리형제교회
노광조 목사	B.A.	감사한인교회-아프카니스탄 선교사
이명욱 집사	B.A.	동양선교교회
이순자 집사	B.A.	충현선교교회
오광탁 목사	B.A.	반석선교교회
최영석 전도사	B.A.	LA 한인침례교회
조경진 전도사	B.A.	선한목자교회
박정일 목사	M.A.	일본 선교
정부르스 목사	M.A.	소망과 사명교회
최선영 전도사	M.A.	WMU 사무처장
윤병완 전도사	M.Div	행복한 교회
이사무엘 목사	M.Div	한국 사역
임양택 목사	M.Div	소망교회
장시희 전도사	M.Div	Servant Church

2006년 제 15회

강명석	B.A.	
김선영	B.A.	
김소영	B.A.	
김영준	B.A.	다우니 OMC
박기용	B.A.	동양선교교회
박영산	B.A.	흰돌 교회
이귀란	B.A.	Cypress 침례교회
이인미	B.A.	둘로스 교회
이지나	B.A.	나성교회
정연희	B.A.	선한목자장로교회
박지은	B.A.	예수마을교회
김진주	M.A.	Cornerstone Church
문혜원	M.A.	올림픽 장로교회
강태준	M.Div	나성양문교회
김영종 목사	M.Div	새생명비전교회
노광조 목사	M.Div	감사한인교회
백희숙	M.Div	남가주 사랑의 교회
양덕승 목사	M.Div	베델 한인 교회
오하영 전도사	M.Div	시카고
우상문	M.Div	베델한인교회
이지혜	M.Div	Oriental Mission Church
장원욱 목사	M.Div	새생명비전교회
한대연	M.Div	베델 한인교회
최준영	M.Div	Oriental Mission Church
홍표란	M.Div	Christian Assembly

2007년 제 16회

김영철	B.A.	다우니 OMC
김명구 목사	B.A.	선한청지기교회
김룡	B.A.	횃불교회
김병성	B.A.	윌셔온누리교회
김용일	B.A.	한국
Dan Son	B.A.	오레곤 동양선교교회
김현욱	B.A.	가까운교회
김혜정	B.A.	동양선교교회
박정애	B.A.	New Hope Chapel
오정성	B.A.	나성순복음교회
윤명주	B.A.	동양선교교회
이강천	B.A.	동양선교교회
이기영	B.A.	
이옥희	B.A.	마가교회
임중혁	B.A.	다우니 동양선교교회
장은혁	B.A.	온누리교회
정성자	B.A.	새생명비전교회
정세련	B.A.	엘사우스교회
한춘복	B.A.	평강교회
허영애	B.A.	유니온교회
윤성희	B.A.	동양선교교회
원영미	M.A.	새창조교회
김정신	M.A.	열린문교회
김연주	M.A.	시온교회
임명화	M.A.	영원한기쁨교회
전진수	M.A.	인랜드교회
홍선영	M.A.	새생명비전교회

2007년 제 16회(계속)

강대홍	M.Div	남가주아시아교회
유동근 목사	M.Div	세계로선교회
김덕호 목사	M.Div	사과나무교회
서충석	M.Div	가든그로브 남가주가스펠교회
이혁우 목사	M.Div	밸리 하나로교회
장재영 목사	M.Div	베렌도한인침례교회

2008년 제17회

곽창원	B.A.	
김그레이스	B.A.	베다니 한인교회
김경래	B.A.	
김대성	B.A.	LA 동양선교교회
김옥배	B.A.	충현성결교회
John Kim	B.A.	
박옥련	B.A.	중앙연합감리교회
석미연	B.A.	
심갑섭	B.A.	
안두환	B.A.	LA 동양선교교회
안정희	B.A.	말씀의 집 영유아부 전도사
엄인호	B.A.	
왕영신	B.A.	LA 동양선교교회
윤상숙	B.A.	글렌데일 그리스도의 교회
이석주	B.A.	마가교회 새벽예배 인도, 장/청년부 성경공부
이원희	B.A.	LA 온누리 운영부 전도사
이정인	B.A.	
이홍구	B.A.	빌립 선교회 대표 목사
정병기	B.A.	LA 온누리 운영부 전도사
조광범	B.A.	새생명비전교회
주익성	B.A.	LA 동양선교교회
차세실	B.A.	성 바오로 성당 상담사역
채규태 목사	B.A.	Good Morning God Bless Mission/노숙자 사역
채동훈 목사	B.A.	마가교회
최은희	B.A.	남서울 은혜교회
최자란	B.A.	Calvary Chapel
권상욱	M.A.	세계비젼교회
김영안	M.A.	나성성결교회 Soloist
김주영	M.A.	미주평안교회 반주자
김희경	M.A.	나성금란교회
박양숙	M.A.	시온연합감리교회 성가대
백혜선	M.A.	한국
이나은	M.A.	윌셔연합감리교회
이미경	M.A.	Shepherd of the Hills Church
이미정	M.A.	Redeemer 장로교회
강석재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일본 선교사
기회승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광주지역 간사
김상충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김수현 목사	M.Div	샌디에고 한빛교회
김옥균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김인철 목사	M.Div	St. John' s Presbyterian Church/국제 사역
김철수	M.Div	세계로 선교회/부르키나 파소 선교사
노명철 목사	M.Div	나성 주님의 교회 부목사
노창수 목사	M.Div	한국
박창식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남아공 프레토리아 선교사
송필오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부산지역 전임 간사
신중필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일본 선교사
오광탁 목사	M.Div	반석선교교회 목사
이대일	M.Div	새벽교회
이성균	M.Div	
이영섭	M.Div	세계로 선교회/서울지역 간사
이종임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부산지역 간사
이종현	M.Div	동양선교교회
이지희	M.Div	가까운교회
이홍주 목사	M.Div	월드미션대학교 학생사역 Director
장윤현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간사
장진호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코트디부아르 선교사
Paul Chung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인도 선교사
조승환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하윤호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캐나다 선교사
허종훈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일본 선교사
황만기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서울 지구 간사

월드미션대학교 후원자 명단

이사회 후원 Board Membership

Hahn, James S.
Hwang, Jae Kil
Jung, Bong Mo
Jung, Sung Kil
Yoon, Sung Hwan
Cho, Jung Hyun
Chung, Jin Sik
Oh, Kwang Chan
Park, Ok Grace
Shin, Jae Kwon

연합회 후원 WEMA Support

Alaska OMC
Arizona OMC
Austin OMC
Downey OMC
Hanbit Church
Sao Paulo OMC
WEMA

동문회 후원 Alumni Support

Bae, Cha Nyang
Chang, Cosmos
Cho, HyunJoo
Cho, JungMi
Choi, Sarah Myong
Choi, Sun Young
Jun, Sung Do
Kil, SunWook
Kim, David KwonSoo
Kim, Jea Hannah
Kim, Kathy Kyong
Kim, KiJong
Kim, Kyu Ho
Kim, Kyung Rae
Kim, Kyung Rye
Kim, Thomas T.
Lee Hong Joo
Lee, Ji-Hee
Lee, Ki Young
Lee, MiRan
Lee, Rebecca Shin-Jae
Lee, Sang Hyouk
Lee, Sang Mi
Lee, SungHee
Lim, Bo Young
Lim, Sung Jin
Nam, Yoon Hee
No, Shanen Jong
Park, Byung Moon
Park, Jung Ae
Park, Ok Grace
Park, Sunmi
Park, YoonWoo
Song, YunHyo
Won, HyonOk
Yeo, Hyun Jung
Yi, MyungEun Grace
Yoom, Myung Ju
Yoon, Sung Hwan

기도후원회 School Prayer Support

Alaska OMC
Arizona OMC
Austin OMC
Baek, MoonJin
Chang, Jay Sungil
Cho, MyungHi
Choi, Mi Jeong
Every Nations Mission
Ham, Jung Hee
Han, Kyu Hwan
Han, Sung Nam
Han, Yongsook
Jun, Sung Do
Kang, Young Hye
Kim, David KwonSoo
Kim, Hanna
Kim, HeeYeol
Kim, Hyun Kil
Kim, JaeHyun
Kim, Jea Hannah
Kim, Ki Sung
Kim, Kyung Rae
Kim, Kyung Rye
Kim, Ok J.
Kim, Ok Ja
Kim, Steve Jun
Kim, Thomas T.
Kwon, Mun Cha
Kye, Oak Ju
Lee, Gina
Lee, Hong Joo
Lee, Hyo Shin
Lee, Hyun Joo
Lee, In Sook
Lee, Keum Hee
Lee, KyoHoon
Lee, Rebecca Shin-Jae
Lee, SangWoo
Lim, Eun Hwa
Lim, Sung Jin
McCann, Young Su
Park, Byung Moon
Park, In Hyuk
Park, In Sook
Park, Jung Rae
Park, Ok Grace
Park, Ok Hee
Park, SunMi
Park, YoonWoo
Seung, Willie
Song, YunHyo
Sung, Byung Hyun
Wee, Clara
Yeo, Byung Hyun
Yeo, Esther
Yeo, Hyun Jung
Yeo, John UkJae
Yong, Hye Sun
Yoo, Keum Ja
Yoo, Soon Eui
Yoon, Chang Sub
Yoon, Sun Il
Yoon, Sung Hwan
Yu, Kumja Karen

장학금 후원 Scholarship Donation

Kim, Jung Il
Kim, Kyu Ho
Kim, Young Man
Kim, YoungHae
Lee, Rebecca Shin-Jae
Lim, Sung Jin
Proland

달란트 운동 참여자 Talent Movement

An, EunOk
Choi-Ko, MyungSoon
Hong, JungSoo
Jeon, YoSeop
Kim, Anna J
Kim, ChulYi
Kim, JuHun
Kim, KwangSook
Kim, Sang Wook
Kim, Sun Young
Kim, SunAe
Lee Hong Joo
Lee, SungHee
Moon, Cindy
Park Son, JuEun
Park, GyoungMi
Park, Sunny
You, YoungLim

후원의 밤 후원 The Night of WMU Support

Bae, ChaNyang
Bae, Young Ha
Bahk, Solomon
Cha, Ki Dong
Chang, Cosmos
Cho, Hyun Joo
Cho, Jung Hyun
Cho, JungMi
Cho, SeogHwan
Cho, Yong Jic, CPA
Choi, Sarah Myong
Choi, Sun Young
Choi, Unyong Joseph
Chung, Jin Sik
Downey OMC
Everlux, INC.
Hahn, James S.
Han, Jin
Hong, Seung M.
Hwang, So Myung
Hwangbo, Peter Bok
John E Mckenna
Jung, Bong Mo
Jung, Sung Kil
Jung, Young S.
Kil, SunWook
Kim, David KwonSoo
Kim, DongHwan
Kim, Hyun K.
Kim, Kathy Kyong
Kim, Ki Sung
Kim, KiJong
Kim, Kwang Don
Kim, Kyu Ho
Kim, Sun Ick
Kim, SungEun
Kim, Thomas T.
Kim, YongWon
Kim, Young S.
Lee, Chai H.
Lee, Hong Joo
Lee, HyunKi
Lee, Ji-Hee
Lee, Jong Kwon
Lee, Keum Hee
Lee, Ki Young
Lee, MiRan
Lee, Sang Hyouk
Lee, Sang Mi
Lee, SungHee
Lee, Young Sil
Lim, Bo Young
Lim, Paul JongHo
Lim, Steve S.
Lim, Sung Jin
Los Feliz Florists(Kim, Kwang Chan)
Min, Byung Young
Nam, Yoon Hee
No, Shanen Jong
Nok Doo Printing
Oh, James M.
Oh, Mary Frances
Ohn, SungChul Stanley
Onnuri Mission Church
Paek, Grace Eunsil
Paek, Yun C.
Park, DugRye
Park, John
Park, Jung Ae
Park, Ok Grace
Park, SunMi
Park, YoonWoo
Proland
Ra, Chul Sam
Shin, Seon Mook
Song, UnCheol
Song, YunHyo
Suh, WonBok
Sung, Byung Hyun
Wilshire State Bank
Won, HyonOk
Yeo, Hyun Jung
Yi, MyungEun Grace
Yoo, Denni Sang
Yoon, ImSang
Yoon, Myung Ju
Yoon, Sung Hwan

일반 후원 Other Donation

Cerritos OMC
Chey, George S.
Chung, Jin Sik
Chung, Susan HeeRan
Ham, Jung Hee
Hong, JaeEun
Hwang, JaeKil
Kil, SunWook
Kim, Thomas T.
Kim, YoungHae
Lee, BogKwan
Lee, ChongSoo
Lee, Ji-Hee
Lim, Dong Sun
Lim, Paul JongHo
Lim, Steve S.
OMC- YeoSangRak Mission
Music Department
Park, JeYoung
Sung, Ki Soon
WMU Student Union
Yoon, ImSang
Yoon, Paul Ki Sung

월드미션 대학교 교가

씩씩하게
Allegro Moderato ♩= 120
임동선 작사
박재훈(1992.5.30)
1.주 님 이 부 – 르 – 셨 네 주님 이 부 르 셨 네 추 수 할 일 – 꾼 –
2.주 님 이 보 — 내 — 시 네 주님 이 보 내 시 네 죽 기 까 지 — 충 성
되 라 우 리 를 부 르 셨 네 체 력 학 문 연 마 하 라 인 격 영 력 길 러 보
하 라 우 리 를 보 내 시 네 모 든 민 족 제 자 삼 아 땅 끝 까 지 증 인 되
라 (길러보라) 주 – 님 (주님)이 부 르 셨 네 주 – 님 이 부 르 셨 네
라 (증인되라) 주 — 님 (주님)이 보 내 시 네 주 — 님 이 보 내 시 네
solo piano or orchestra 주 님 만 스 – 승 – 삼 은 우 리 월 드 미 션 대 학
교 주 님 만 을 스 승 삼 은 우 리 월 드 미 션 대 학 교